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말씀과 잔치가 함께 하는 어린이 주일

예수님은 일찍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어린이와 같이 순결하고 정직하고 겸손하라고 가르치셨다. 오늘은 5월 첫 주로 어린이주일이다. 오늘 교회에서는 예수님께 서 친히 무릎에 앉혀 가르친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 '앗 하늘에서 선물이 내려온다.'는 1부 가족예배 후 교육1국 소속 모든 어린이(유아, 유치, 유년, 초등

부)와 사랑부학생들이 풍선속에 들어 있는 편지와 선물을 받게되며 한티공원에서 기념 촬영과 찬양잔치를 갖는다.

점심시간에는 모두가 좋아하는 짜장면 파티를 하며 1부 가족예배시간에 어린이 특별 찬양시간이 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은 어린이의 마음으로 돌아가 천국의 상급을 받도록 기도한다.

제30회 강남노회 정기회 개최 -5월7일 오전 9시30분 우리교회당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종윤 목사)는 제30회 강남노회 정기회를 5월7일(화) 오전 9시30분 서울교회당에서 갖는다.

이날 분당에서 개회예배와 성찬식을 갖고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회무처리를 한 후 다시 분당에서 목사안수식을 갖고 다시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폐회예배로 막을 내릴 예정이다. 우리교회 총대는 이종윤 목사의 부목사 전원과 박철훈, 오정수, 김광신, 노문환, 최중시, 윤봉준 장로 등이다.

임마누엘 찬양대 성경공부 시작 오늘 5월5일 주일부터

우리교회의 3부 예배 시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그 동안 시간적으로 성경공부시간에 참석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5월 첫주부터 임마누엘 찬양 대원을 대상으로 성경공부가 시작된다. 성경공부는 매주 일 12:20 ~ 12:40 까지 501호실에서 갖게 되며 이번생 장로, 전기섭 장로, 최학인 장로 임상현 장로가 교사로 봉사하게 된다.

또한 임마누엘 찬양대는 3부 예배에 참석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찬양대원으로 봉사할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 봉사를 원하는 성도는 사무국이나 주일 3부 예배 전 501호실로 가기 바란다.

아브라함 남선교회 · 베들레헴 찬양대 야외예배

5월10일(금) 안면도 · 5월11일(토)구림농원

우리교회 최고령 남선교회원들의 모임인 아브라함 남선교회는 5월 10일 안면도 꽃박람회장서 야외예배 및 율례회를 갖는다. 출발은 당일 오전 7시 교회에서 한다.

한편 베들레헴 찬양대는 5월11일(토) 구림농원에서 야외예배를 갖는다. 출발은 11일 오후 1시 교회에서 한다.

가족찬양대회

5월17일(금) 저녁 7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족찬양대회를 가정의 달인 5월에 갖는다. 가족찬양대회는 5월 17일(금) 저녁 7시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리게 되며 각 교구에서 5월 11일 까지 예선을 거친 두 가정씩이 출전하게 된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교구일꾼수련회

5월 16일(목) 저녁7시 만나 홀

교구일꾼 수련회는 6시부터 만나 홀에서 저녁이 준비되고 7시부터 찬양과 초청강의, 기도회로 진행된다.

이번 수련회에는 '아름마 전도왕'(규장, 2001)의 저자인 과천교회 김인아 전도사를 초빙하여 가족 전도, 이웃 전도, 아파트 전도의 다양한 실제와 양육에 대하여 강의를 듣는다. 교구일꾼 뿐 아니라 전도와 양육에 대하여 관심 있는 모든 교사, 교인의 참석을 바란다. 큰 은혜와 도전 그리고 결단의 시간이 될 것이다.

권사 및 집사 선거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하여 온 5대 권사 40명 및 7기 집사 20명의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5월26일(주일)에 있게 된다.

당회는 5월 4일(토)권사 후보를 확정했으며 집사후보는 5월12일(주일) 찬양예배 후 임시제직회에서 선발한다. 선택된 후보는 19일 순례자를 통해 후보한 후 26일(주일)공동의회에서 최종투표로 결정한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어!

복음전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이다. 이 사명을 감당키 위해 매 주일 3부 예배 후부터 저녁예배 시작 전까지의 시간을 대치역과 한티공원에서 순례자와 전도지를 돌리며 전도로 빈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고 있는 귀한 발걸음이 있다. 함께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과 전도위원회로 연락 바란다.

5월중 행사계획

- 5. 4(토) 정기당회
- 5. 5(주) 새가족 환영회, 교육위원회
- 5. 7(화) 서울강남노회 제30회 정기회
- 5.10(금) 교사연합기도회
- 5.12(주) 전도위원회 · 임시제직회
- 5.16(목) 교구일꾼 수련회
- 5.19(주) 교구위원회, 교구찬양(8교구)
- 5.26(주) 공동의회(권사, 안수집사 선거), 중등부 헌신예배, 찬양위원회

벌써 잊으셨나요?

쓰레기는 분리수거는 생활입니다.

우리생활에서 쓰레기 분리 수거가 정착한지 이미 오래입니다만 교회에서는 매주일 쓰레기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주일 저녁마다 뒤범벅이 된 봉투를 일일이 손으로 뒤져서 다시 쓰레기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버리는 쓰레기에도 아름다운 솜씨를 발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각 부서에서는 음식을 반입을 최대한 줄여서 쓰레기 양을 줄이고 쓰레기 봉투를 두 세 개정도 준비하여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하여 지하1층 쓰레기 모으는 곳에 버려주세요.

내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많은 사람들의 기분이 유쾌해집니다.

이시아서 강해

교회의 영광

(이사야 60장 15 - 22절)



이종운 목사

이제 교회는 평화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정직한 종들이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의와 영광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의가 사라지거나 영광이 없어지거나 기쁨이 끊어진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의와 영광은 항상 함께 나옵니다. 의가 바다의 물결 같을 때 영광은 강같이 흐를 것입니다.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복되고 영광스럽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 이전에 비교해서 현재의 교회는 평화롭고 아름답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15절).

교회의 과거는 세상의 멸시를 받았습니다. 교회의 처음은 미움과 천대의 대상이었고 교회를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우상숭배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16절).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교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나 구속자가 되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뿔 왕의 젖을 빨고"(16절).

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 모든 나라들과 집권자들의 봉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혀 모르는 이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돕는데 이것이 교회가 받는 현재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지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사람도 버리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면 사람들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우상숭배에서 돌아올 때 일어납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돛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돛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17절).

현재 교회는 풍요롭게 되어 전보다 아름답고 견고하게 되며 만사가 개선됩니다. 17절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돛으로 지어졌던 성전이 금으로, 철로 지어졌던 성전이 은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 교회의 외부적 화려함의 영광보다 신약교회의 영적 영광이 더 뛰어날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해서 승리를 하고 계속적인 영광을 누리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교회에 화평과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영광과 희락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롬 14:17).

이제 교회는 평화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정직한 종들이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의와 영광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의가 사라지거나 영광이 없어지거나 기쁨이 끊어진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의와 영광은 항상 함께 나옵니다. 의가 바다의 물결 같을 때 영광은 강같이 흐를 것입니다.

만약 악을 안고 있으면서 평화를 누리다면 그것은 참 평화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

는 거두지 말라"(눅 3:13)는 교훈을 준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는 공의가 있어야 하고, 세상을 향하여 공의를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18절).

지금까지는 교회가 이방들에게 모욕을 당했고, 침해와 약탈을 당했으나 미래의 교회에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폭력군들의 위협 소리나 의기양양해 하는 말들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며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의 울부짖음이나 불평도 더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18절).

사람이든 사물이든 교회 안에서는 그 심령에 황폐와 파멸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구원이 성벽처럼 보장되고 찬송이 문이 열리듯 나오게 되는 심령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란 구원의 백성을 말합니다. 미래의 교회는 구원이 확정되고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종일토록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찬송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2. 교회는 천국의 영광과 행복을 보여준다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께서 네 영광이 되리니"(19절).

해와 달의 빛은 행복을 상징하고 진리와 기쁨과 성결과 평안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진 교회의 행복은 피조물인 해와 달의 행복에 비교할 수 없이 큼니다. 교회의 영광은 이처럼 아름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영광과 행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20절).

새 예루살렘에는 영원한 해와 달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취심으로 그곳에는 해나 달이 저서 어두운 때가 없

게 됩니다. 이것은 슬픔과 불행의 상징인 밤과 어둠은 모두 물러가서 다시는 곤고한 날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이고 천국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우리는 지금부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되실 때 슬픔과 탄식의 날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며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3.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임이"(21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 의로워지고 영원히 구원을 얻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심은 것같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연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심은 가지이며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 감람나무에서 가지를 꺾어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셨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22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은 교회로 하여금 성장케 하시어 하나님 백성의 수를 채우시려 함입니다.

천국운동은 적은 수로부터 확대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는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는 새들이 깃들고 길손이 쉬를 얻는 큰 나무를 이룹니다. 또 누룩 한 덩어리는 온 그릇 전체를 누룩으로 만듭니다.

천국에서 크게 되려면 자신을 남보다 작은 자로 알아야 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 때 작아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시 51),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은 남의 많은 죄보다 우리의 작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죄를 미워하기 전에 자기 죄에 대한 강한 중오감이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수만 가지 일을 못 다한 자신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할 가능성이 남보다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에서 많은 것을 구하십시오. 남보다 내게 가진 것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실 것이 많을 것이므로 가진 것으로 인하여 교만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어야 할 것입니다. 신자는 남에게 보다 자신에게 괴로움을 더 많이 당하고 많이 속아 왔습니다. 원수는 내 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라고 고백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죄로 인해 얼마동안은 낮아지거나 회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높이시고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며 겸손하고 낮은 자가 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승우 아빠가 사랑하는 종알이 승우에게



초등부 최승우 아버지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한 승우야.
 벌써 네가 5학년이 되어 키도 쑥. 마음도 쑥. 신앙도 쑥 자란 어린이가 되어 있구나.
 너는 언제나 우리집의 막내 재롱둥이로 자라 잠시도 쉬지않고 종알종알 대며 참새가 지저귀 듯이 얘기하기를 좋아하지만 남을 생각하는 너의 마음씨는 예수님을 너무 닮은것 같다.
 몇일전 네가 모르는 아주머니의 무거운 짐을 들어준 얘기를 아빠에게 해주었을 땐 우리 승우가 너무도 대견스럽고 든든하게 생각 되었다.
 지금은 아빠가 승우에게 장난도 치고 귀찮게 하며 승우와 놀지만 승우가 장난치기엔 너무 커버려서 아빠의 즐거움도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승우가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큰 감사란다.
 승우야 네가 새벽에 아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언젠가 말했었지? 아빠는 자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단다.
 우리 승우도 부모의 기도로 양육되는 어린이 이니 네곁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밝고 착한 심성을 가질수 있는 것이라 믿는다.
 아빠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근우 승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서 키워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단다.
 승우야 앞으로도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도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너보다 남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친구들과의 우정도 차곡 차곡 잘 쌓아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빠의 사랑을 전한다.
 승우야 사랑해.



사랑하는 딸 연경에게

이경화 집사(1교구) - 유년부 박연경 엄마

어제 학교 공개수업시간에 네가 발표하는 것을 보니 엄마는 정말 가슴이 뻘뻘했다.
 우리 연경이가 벌써 자라서 초등학생이러니...
 아장아장 걸음마 하던 때가 아직도 엄마 눈에 선한데 어느덧 가방 메고 학교에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연경을을 우리가정에 보내주신 것, 예쁘고 착하게 하루하루 지내는 것, 동생 연준이랑 사이 좋게 노는 것. 이 모든 것이 엄마는 기쁘고 감사할 뿐이란다.
 언젠가 연경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지? "엄마 내가 실수해도 친절하게 웃어주는 내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또 동생 연준이가 귀찮게 굴 때 "난 예쁜 여동생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런 말쑥꾸러기 남동생은 싫어요."
 그래 연경아 네 말이 맞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연경을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엄마가 될게. 그리고 예쁜 여동생 없어서 섭섭하니? 그러면 엄마가 연경이의 동생도 되어줄게.
 연경아! 엄마도 연경이에게 부탁이 있어. 너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경이가 되길 바래. 날마다 Q.T도 열심히 하고 또 건강한 어린이가 되거라. 엄마도 늘 위해 기도하며 늘 지켜볼게.
 연경을을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 5월2일 어린이날을 며칠 앞에 두고
 엄마가



가족예배의 기쁨

최지혜(11교구)

올해부터 내게는 새로운 기쁨이 하나 생겼다. 서울교회에 가족예배가 생겼지만 교육전도사로 유치부를 섬겼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항상 유치부실에 있어야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 기회를 주셔서 새해부터 두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여러 해 전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미국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다. 그때는 신학생이었고 새로운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학교 앞에 있는 미국교회에 참석했을 때 예배시간에 어린아이들이 앞에 올망졸망 모여 앉은 것이 눈에 띄었다. 제법 커다란 규모의 교회인데 교육부서가 없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그런데 설교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목사님 앞으로 우르르 몰려나가고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짧고 쉬운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다.
 그리고 잠시 후 아이들을 담당 선생님이 데리고 나가고, 목사님은 강대상 위로 올라가셔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다시 메시지를 전달하셨다. 나는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을 떠올렸다. 성경에 의하면 그 자리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명이나 되었다(마14:21)고 하였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바위나 바닥에 앉아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였다. '아이들은 왜 그곳에 있었을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넓은 장소에서 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그 오랜 시간동안 예수님은 몇 번이나 '애들이, 좀 조용히 하지 않겠니?'라고 하셨을까?' 늘 내 마음에 일던 의문이었

다.
 지난해 저녁 수요일예배에 참석하였다. 승세(10세)는 감기 때문에 오른쪽 옆에 누운 채 잠이 들었고 성민(9세)이는 왼쪽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말씀이 선포되고 목사님의 기도가 있기 전에 잠시 2-3분간 기도를 하는 시간이였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살며시 눈을 떠서 성민이를 보는데 두 손을 꼭 잡고 좌우로 몸을 흔들면서 기도에 취해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였다. 그것은 분명 성령이 함께 하는 순간이였다. 또한 나에게 새로운 사과의 출발이였다.
 성민이는 "엄마, 기도시간이 너무 짧지요. 한 50분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더니 자신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가서 전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이다. 너무 장난꾸러기여서 주변에서 자주 꾸중을 듣는 아이지만 주님께서 주의 영을 나의 자녀에게 부으셔서 그들이 장래 일을 말하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바라보게 되기를 나는 기대한다.
 나는 가족예배의 설교의 새로운 형태를 기쁨으로 바라본다. 절대권위가 사라진 장단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에 대화설교를 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곳에는 어린아도 여자들도 있었다. 뛰놀기를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 여럿이 모여 팔레타에서 주변사람들 이야기로 웃음을 피워낼 여인네들이 권위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다. 예수님의 눈에 어린아이들도 여인네들도 복음을 듣

고 구원에 임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집 아이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속에는 새로운 학설들이 속출한다.
 "너, 설교시간에 뭐했어? 나보고 바보라고 하면 지옥 간다." "엄마, 마약이 뭐야? 마약이 나쁜 거야?" 혹은 우리 부부가 대화를 하다 언성이 약간 높아지면 "엄마, 하나님이 이혼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라고 미리 엄포를 놓는다. 그러면 우리 부부는 웃음을 터뜨리느라 대화의 내용도 잊고 만다. 아마도 자녀와 함께 1부 예배를 드린 부모라면 이런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된다.
 나는 아들을 통해 아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감동시키심을 확실히 보았다. 비록 그들이 예배시간에 장난을 치고 마치 거룩함이 사라진 예배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던 넓은 들판에는 부모님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장난꾸러기 아이가 예수님께 자신의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조각을 드렸다.
 21세기의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1부 예배의 기쁨을 통하여 요엘서의 말처럼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되기를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자녀를 두고 있는데 함께 1부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정이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스러운 자리로 초대하고 싶다.

북한에서 온 편지

하나님의 은혜로 51년만에
북한 동생의 편지를 받고 보니...

안승겸 성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이 글을 씁니다. 저는 14세였던 6.25사변 때인 1950년 11월14일 야밤에 읍내 유치들 틈에 끼어서 정든 고향포구에서 어머니와 어린 두 동생(8세, 4세)과 작별을 고하고 작은 목선을 타고 수 십일간의 항해를 하고 결식을 하다시피 하며 남한에도 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2년이 흘러 저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때 이별한 고향 가족들에 대한 한 맺힌 그리움에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사만이라도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왔습니다. 이런 저에게 작년 3월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 사시는 한 분 권사님이 전화를 걸어와 51년만에 그리던 북한의 남동생의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바로 그분도 6.25때 월남하여 51년 동안 계속 찾고있던 가족을 만주를 통한 수소문을 통해 간신히 만났는데 북한에 있는 그분 가족의 머느리가 저의 조카딸(동생의 둘째 딸)로 그 권사님 가족과 동생의 가족이 사돈간이 되었던 것이고 바로 그 머느리가 적어준 쪽지와 편지, 사진

을 가지고 저를 찾으신 것입니다.

북한에 들어가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가져다 그분을 통해 전해주시는 편지에 의하면 저의 가족들은 고향에서 쫓겨나 압록강변의 집단마을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동생은 편지에서 너무 어려서 헤어져(4살) 생년월일조차 잘 알지 못하지만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큰형의 소식을 듣게되어 너무 기쁘다며 생존해있는 가족들의 근황을 사진과 함께 전해왔는데 너무나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51년만에 동생의 소식을 알게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50년 이상을 철의 장막으로 막혀있던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내 형제 가족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아있게 하여 이렇게 연락이 되게 하심을 눈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축도 때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이종윤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성도들의 애끓은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 우리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을 확신하면서 그날이 오면 저와 저의 자녀들을 데리고 제일먼저 고향에 가서 고향아름다운 해변 언덕 위에 지금은 없어진 예배당을 대신할 새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해 하겠습니다.

보비 여전도회의 성지순례

유기순 집사(1교구)

지난 목요일(18일) 보비 여전도회의 야외 예배가 있었다. 출발 전 김운호 목사님의 인도로 경전회를 드리고 버스에 올랐다. 32명이 모인 차안은 창을 통해 들어오는 은은한 아침 햇살이 더욱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다. 매달 모이는 여전도회이지만 월례회가 끝나면 집에 가기 바빠서 서로 얼굴만 익혔을 뿐이었는데 그 날은 온종일(저녁 8시까지) 함께 지내며 자기 소개를 하고 피차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니 한결 가까워진 느낌이다.

우리가 돌아본 곳은 두레마을의 성막과 제암리 교회이다. 두레마을에서는 실제 크기로 지어놓은 성막을 보았다. 제물을 태우는 곳, 물두멍, 떡반죽 그릇, 또 떨기나무, 로렘 나무, 식당나무 등을 사진으로 보며 우리는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암리 교회, 이곳은 일제시대에 만세운동으로 인해 제암리 마을 청년들이 갇혀 불에 탄 교회이다. 조국과 교회를 지키다가 끝내 순교한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어둠이 내릴 즈음에야 서울에 도착한 우리, 가족들의 저녁식사가 걱정이 되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눈 성도의 교제로 우리는 한층 더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동정

- 이사: 한길동 (12교구) 용인시 코림동 996 영화APT 103-203 tel: 031-323-2470
홍중표 집사 · 위성남 집사 (12교구) tel: 031-286-1820
- 개업: 신중익 · 황교정 성도 (4-8다락방) 도미노피자 신연수점 tel: 011-9738-3439
- 득녀: 옥중호 성도, 손지희 성도 가정 (12교구)
정치는 성도, 김영현 성도 가정 (9교구)

- ☞ 금주의 식사제공: 김영주 집사이애순 권사 가정(준공감사) 오형철 집사 신동기 권사 가정(범사에 감사하며)
- ☞ 21학기 목회자세미나 간식제공: 이영수 장로 박정순 권사 가정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 (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 (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10일간의 불꽃같은 사역을 위하여

(제2기 단기선교팀에 바란다)

고경선 목사

지난주부터 몽골을 향한 제2기 단기선교팀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10일간의 불꽃같은 사역을 위하여 15주간의 준비하게 됩니다. 30명의 복음의 전사들이 특수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제1기 팀을 지도했던 경험으로 제2기 팀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단기선교는 외국관광이 아니다

단기선교는 단기간에 행하는 선교사역입니다. 관광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구원을 사모하는 영혼들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에 눈물 흘릴 것입니다. 단기선교는 이방을 위한 구원의 빛을 비추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성령이 역사하신다

막연한 준비는 막연한 단기선교를 만듭니다. 어린이사역, 찬양사역, 의료봉사 등 구체적인 사역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준비는 우리가 하되 역사는 성령이 일으키십니다. 10일의 기간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100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단기선교는 순종의 연습이다

이방신이 확보하는 선교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선교팀은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정을 인도하는 선교사님께 절대 순종하십시오.

선교팀을 지도하는 목사님께 절대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선교팀에게, 사단은 공격할 틈을 얻지 못합니다.

단기선교는 기도만큼 열매 맺는다

기도는 선교팀의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안전을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려면 기도하십시오. 구원의 열매를 보기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30명의 가는 선교사와 나머지 보내는 선교사들의 기도함주로 서울교회의 제2기 단기선교도 큰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1학기 목회자세미나 · 성경대학 · 경로대학 · 주부대학을 위하여
2. 가정의 화평과 자녀의 믿음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